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투자회사의 중국 진출방안

2011.12.08일

李昌英

중국금융연구원 대표(經濟學博士)



李 昌 英(경제학박사, 중국인민대학)

블로그(필명: 아판티): blog.daum.net/lee.afanti

Email : lee.afanti@gmail.com

저서: 중국의 금융제도 (2011.4, 금융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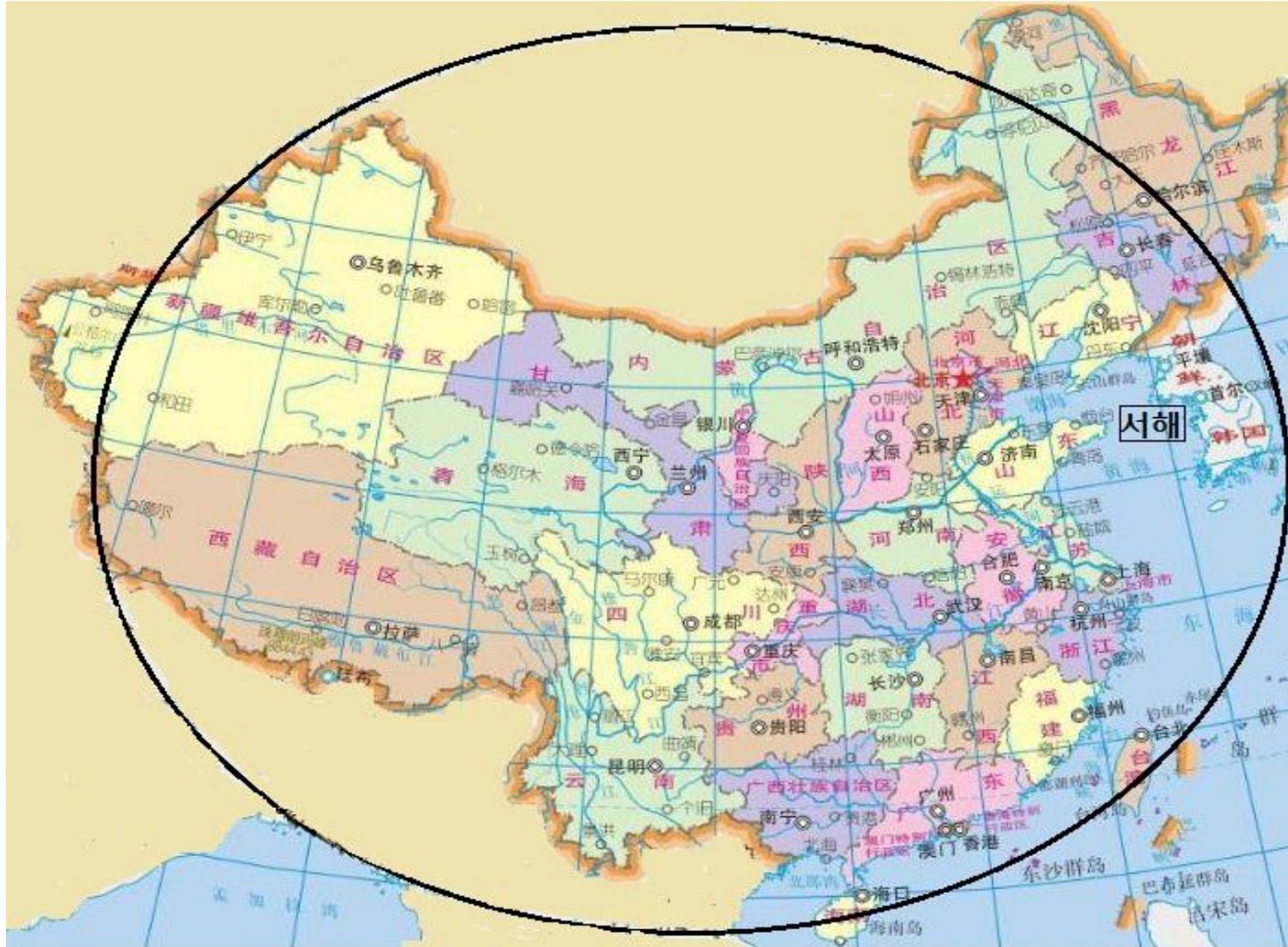
강의경력

- 2003.9 중국해양대학교 현지어 강의(한국금융)
- 2007.8 KIEP 한중 FTA 연구보고서 (금융분야)
- 2007.3 송실대학교 강의(중국금융)
- 2011.4 기획재정부 강의(10년 후 위안화, 전망과 대응전략)
- 2011.4 SBS CNBC 방송(차이나머니 유입과 시사점)
- 2011.5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정자문(중국투자유치)
- 2011.6 금융연수원 강의(중국금융의 이해 20차시)

경력

- 1974.3 기업은행 입행
- 1999.8 기업은행 중국 천진지점 차장
- 2002.8 기업은행 중국 청도지점 지점장
- 2003.9 중국해양대학 교수(겸임)
- 2007.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2007.3 송실대학교 겸임교수(現)
- 2010.6 중국금융연구원 대표(現)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I. 중국 자본시장 개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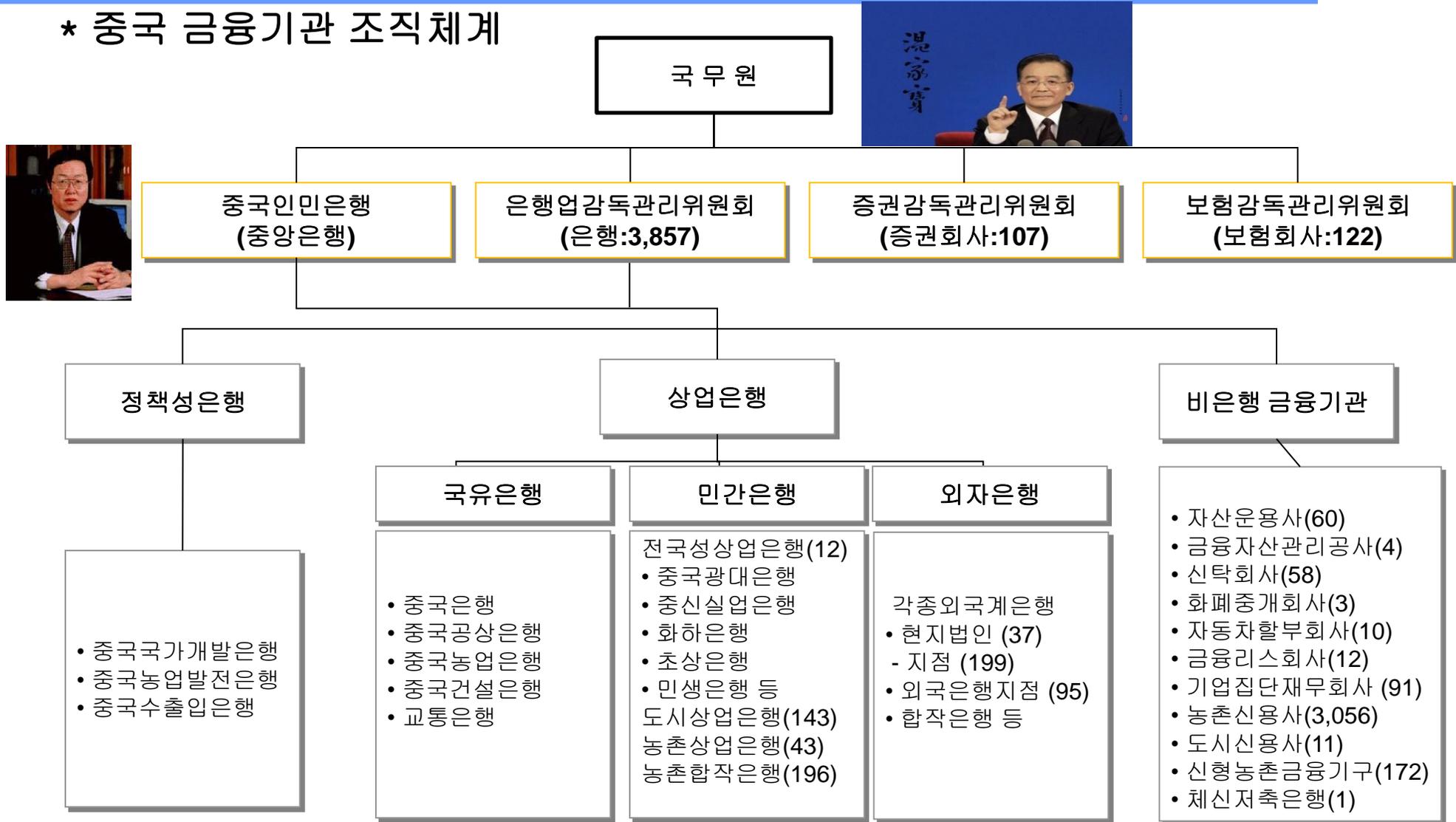
- 1. 중국 금융산업 개방 현황**
- 2. 금융투자회사**
- 3. 합자 증권사/자산운용사**
- 4. QFII, QDII**

II. 한국 금융투자회사의 중국 진출 방안

- 1. 중국 진출 현황**
- 2. 향후 중국 진출 방안**

I. 중국 자본시장 개방 현황

* 중국 금융기관 조직체계



* ()숫자는 2009년 말 현재 기준

I. 중국 자본시장 개방 현황

1. 중국 금융산업 개방 현황

2010년 12월 기준

영역	개방 현황	외자계 현황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 12월 WTO 가입, 대상고객과 지역제한 점진 철폐 '06년 말 위안화 업무의 취급지역 및 고객제한을 완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법인 37사 [한국계 5사]: 우리, 하나, 신한, 기업, 외환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 12월 WTO 가입, 외국인 지분 50% 합자생명보험사 설립 허용 '03. 12월 외국 손해보험사의 100% 출자 현지법인 설립 허용 '04. 12월 설립지역 제한 및 생명보험 상품취급 제한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법인 43사 [합자생명보험 27, 손보 16] [한국계 4사]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년 말 외국인의 증권사(20%) 자산운용사(33%) 지분 보유 허용 '02년 QFII 제도 도입, 합자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설립 허용 '06년 말 외국인의 합자증권사(33%) 및 자산운용사 지분 49%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자증권사 9사 [한국 0] 합자자산운용사 32사 [한국 0] 대표처: [증권사] 127사 [한국 11사] QFII 기관 97사 [한국 9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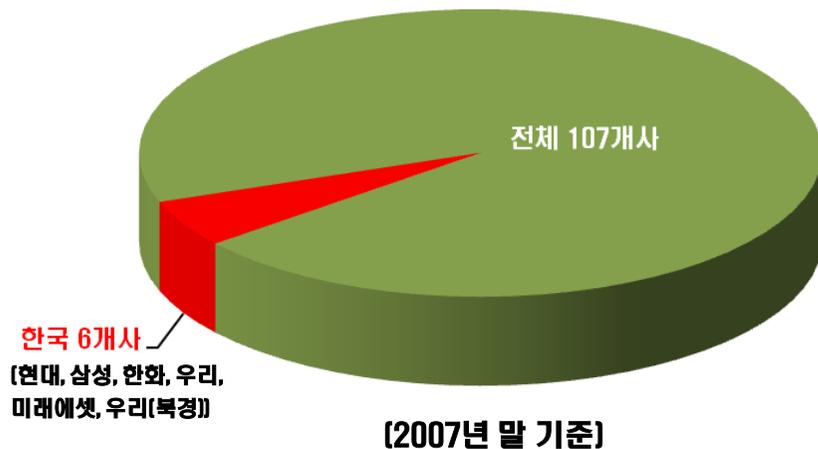
I. 중국 자본시장 개방 현황

2. 금융투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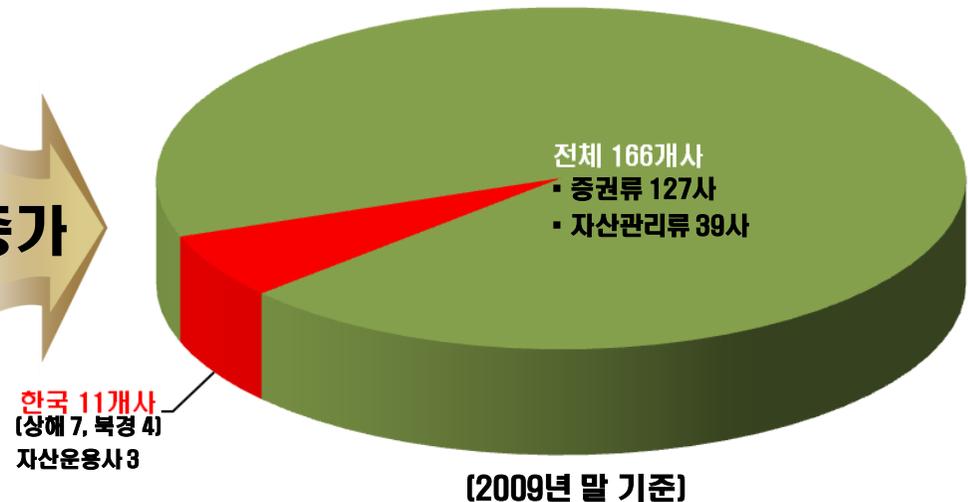
대표처 설립 : 총 107사 ('07년 말 기준) → 총 166사 ('09년 말 기준)

- 외국계 증권사 : 지점 또는 독자적인 현지법인 설립 금지
- 유럽, US, Australia, Asia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
→ 한국 대표처 진출 비율 상당히 높은 편

중국 대표처 설립 현황



증가



I. 중국 자본시장 개방 현황

3. 합자 증권사/자산운용사

합자 증권사 (지분1/3 한도 범위) : 총 9사 (미국 2, 유럽4, 일본1, 홍콩2)

- CICC(모건스탠리), CESL(CLSA), SMBC(다이와), GSGH(골드만삭스), UBSS(UBS), CS(스위스), ZD(도이치뱅크)
中银国际证券(BOC International Holdings(HK)), 光大证券(China Everbright Ltd(HK))

합자 자산운용사 (지분49%) 허용 : 60사 중 32사가 중외 합자 자산운용사

- 그 중 아시아계는 일본 1, 싱가포르 1에 불과

합자 자산운용사의 비중

	회사수	비율	설정자산	비율	펀드수	비율
외자계	32	53.3%	10,731억 위안	43.7%	298	49.3%
중국계	28	46.7%	13,820억 위안	56.3%	307	50.7%
합계	60	100%	24,551억 위안	100%	605	

자료 : Morning Star('09.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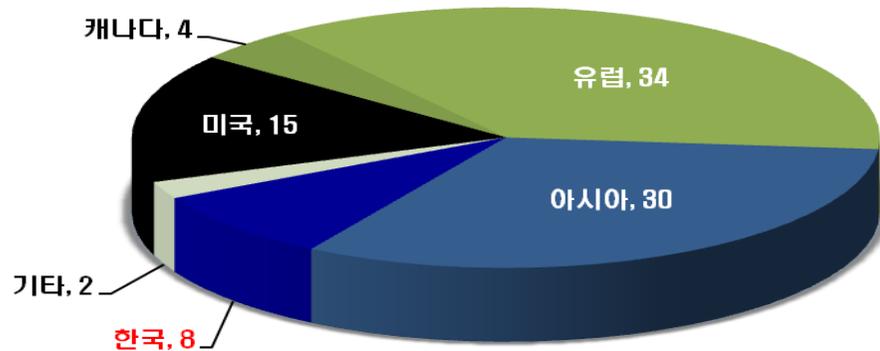
I. 중국 자본시장 개방 현황

4. QFII, QDII

QFII : '02년 제도 도입, 증시기반 확충 차원 자격요건 및 한도 등 완화·상향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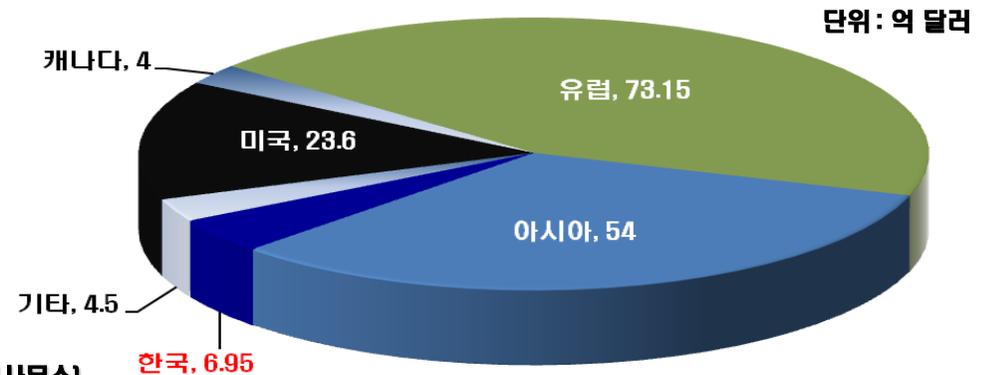
- 총투자한도 100억불 → 300억불 상향('07년 12월), QFII당 투자한도 8억불 → 10억불 상향('09년 11월)
- 2010년말 97사 자격획득 197.2억불 (한도승인 기준), 한국은 9사로 숫자는 적지 않으나 금액 비중 낮음

국가별 QFII 기관수(09년 말)



(자료: 대신증권 상해사무소)

QFII 분포도 (금액 기준:09년 말)



QDII : '06. 4월 도입, 88사 683.6억불 승인 2010년 말 현재

- 한국은 '08년 6월 한국금융위원회와 중국 은감회(CBRC)간 MOU 체결
→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여섯번째 은행 QDII 기관의 투자대상국이 됨

II. 한국 금융투자회사의 중국 진출 방안

1. 중국 진출 현황

‘08. 4월 이후 한국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의 QFI 자격 획득

총 10사 획득, 승인한도 11.45억불 / 전체 한도금액의 약 4% 비중

한국 금융회사 QFI 신청현황

2010년 말 현재 (단위: US\$)

신청회사	신청시기	신청금액	승인한도	수탁은행	비고
푸르덴셜자산운용	'06. 5월	1억	7.5천만	건설은행	'08. 4월 인가
미래에셋자산운용	'06. 12월	1.5억	2.5억	공상은행	'08. 7월 인가
삼성투신운용	'06. 12월	1.5억	3.0억	중국은행	'08. 8월 인가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07. 6월	2억	5천만	공상은행	'09. 5월 인가 '09. 12월 한도 승인
한화투신운용	'07. 8월	0.7억	7천만	씨티은행	'09. 4월 인가
신한금융투자	'07. 8월	3억		도이치은행	
한국투신운용	'07. 8월	4억	1억	공상은행	'09. 7월 인가 '09. 12월 한도 승인
동양자산운용			1억	씨티은행	'09.12월 인가
대우증권	'07. 9월	2억		씨티은행	
산업은행	'07. 11월	2억	1억	건설은행	'09. 5월 인가 '09. 11월 한도 승인
현대증권	'08. 2월	2억		건설은행	
KB자산운용		1억	1억	-	'10.8월 인가
KTB자산운용		1억	-		'10.12월 인가

II. 한국 금융투자회사의 중국 진출 방안

1. 중국 진출 현황

사무소 형태로 진출 (증권사 11, 자산운용사 3)

- 대표처로서는 직접 영업활동은 불가
- QDI 및 QFI 관련 중국증권사, 자산운용사와 협력관계 구축
- '09년 이후 비증권 일반법인(투자자문) 형태의 진출(6개)
: 부동산 PF, 부실채권 인수, 투자자문, 중국기업의 pre-IPO, IPO 등을 매개로 한 IB업무 중개

대표적인 사례

- 상해포동지구의 미래에셋빌딩 매입
- 중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 중국지역 전문투자펀드 결성, 해외증시 상장 등

최근 동향

- 중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 관련 pre IPO 및 IPO 업무 강화
→ 중국기업 한국증시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중국기업 약30사에 이릅니다**
- 투자자들의 시장조사, 투자정보 제공, 자문업무 등 투자자문 업무강화 경향

한국 증권사 중국 진출 현황

2010년 12월 말 기준

회사명	기관구분	소재지	설립년도
우리투자	대표처	상해	1996年
우리투자	대표처	북경	2008年
미래에셋	대표처	북경	2007年
대우	대표처	북경	2008年
HMC	대표처	북경	2009年
삼성	대표처	상해	2002年
한화	대표처	상해	2003年
현대	대표처	상해	1998年
대신	대표처	상해	2008年
신한금융투자	대표처	상해	2008年
SK	대표처	상해	2008年
KTB투자증권	대표처(+)	북경	2000年

·구 KTB네트워크(벤처캐피탈)의 대표처이며, 증권사대표처로 전환 中

·미래에셋, 한화,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등 비증권 일반법인형태로도 진출중임

II. 한국 금융투자회사의 중국 진출 방안

2. 향후 중국 진출 방안

합자 자산운용사 설립을 통한 중국시장 참여

- 개인투자자가 70%에 이르는 중국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개인자산 시장 진출 교두보**

QFII 한도 확대 및 한중합자 증권사 출현 기대

- 개인투자자의 중국 직접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QFII 진입요건 및 절차 간소화
- 한국 금융투자회사와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합자 증권사 적극 추진 – **한국기업 진출지역을 중심**

양국 주식시장 상장 노력 강화

- 한국 대표기업의 중국 국제판 상장, 한국 현지기업의 상장, 중국 우량기업의 한국증시 상장 등

채권시장 교류 확대 노력

- 금년 1분기 중국의 한국국채 순 투자규모 1위(1조 613억원), 한국채권의 최대 보유국으로 부상 전망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

- 향후 전개될 한중 FTA 협상 기회를 금융투자회사의 중국 시장 진입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

谢谢 감사합니다

블로그: blog.daum.net/lee.afanti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